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성탄      제목 : 비천함을 돌보시는 주님      성경: 누가복음  
1장 46-55절

-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 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눅1:46-55)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두려움에 싸이게 된다.

천사는 그런 마리아를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요한을 잉태한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리아의 가문은 매우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었다. 이 가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탄생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아주 자그마한 촌락.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였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었다. 경건한 말씀 전통이 위대한 탄생을 잉태한 격이다.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 집안이었다. 노동자 계급, 목공예 수공인 가

정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가난이 그들을 휘두르지 못하였다. 왜냐면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하고,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위기였고, 종교적으로는 암울했으며, 율법주의가 팽배하여 문화적으로 비현실적이었고, 사회적으로는 흉흉하여 어느 누구도 민족의 앞날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로마는 포화하였고, 로마 군인들은 늑탈을 일삼았고, 세리들은 혹독하였으며,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은 성전세를 거두어갔으며, 제사장들은 비리에 물들어 있었다. 이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앞에 놓여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미 다윗왕조는 오래전에 무너졌으며, 왕도 분봉왕 헤롯이다.(더구나 에돔 출신이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와중에 독립운동을 하겠노라며 게릴라전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의 대세를 몰라도 한참을 모르고 그저 객기로 로마의 군인들과 상대하려고 하고 있었다.

당시 세상에 로마의 군사력과 맞서는 자들은 없었다. 결국 이들과 맞서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마리아는 정말 촌구석의 아낙네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나라를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보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돌보실 때,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경건한 자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비천함은 없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다.

진정한 경건은 비천에 처했지만, 경건을 잃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경건의 목적이 부요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경건의 결과로 부요한 자들도 세상에는 더 많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의 행동결과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비천함에 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경건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견디지 못한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휘둘린다.

그런 중에 마리아는 생각 뜻밖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다. 그녀는 자기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메시지를 받고 크게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자를 찾아내시는 분.

성경의 감동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자를 찾아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찾아내신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를 찾아내신다.

말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를 찾아내신다.

그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 (다른 가능성 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함께 부부가 되려는 자들 중에 그런 자는 드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비천함을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베푸신다. 그를 도우시며, 그를 위로하신다.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용기를 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1.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이다.

##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일종의 꿈이나 환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용기를 얻는다.

### 2.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돌보심을 깨닫는다

####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불경스럽고 더러운 생각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깨닫지는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다.

### 3. 생각이 교만하면 돌보심을 깨닫지 못한다

####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일단 윗사람의 말에 잘 동의하지 못한다.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대개 힘이 없다. 말만 있고 열매는 없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빨리 생각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멍처서 함께 일하는 경향이 없다.

이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돌보심을 깨닫자. 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죄악    제목: 오늘날 생각해야 하는 죄악들    말씀:  
디모데 후서 2장13-22절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매사에 성실하시다.

14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 자신이 맨 처음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하라.
-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라.
- 말다툼을 그치게 하라. 엄히 명하라.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 망령된 말;지 멋대로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말. 나꼼수처럼.
-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대로 더 나아간다.
- 말까지 하면 돌이키기 힘들다.
- 그들은 더 악한 말들을 생산한다.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

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딤후2:13-22)

요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돈 그 자체가 곧 신용이다.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한다.

-은행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신용이 더욱 향상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자를 올리기 보다는 금융 코칭을 하라!)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율을 조정하고 지분을 정리하고 불법적일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신용이 불안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안요소들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은행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큰 연봉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지식으로 산업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악하다.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거나,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진정한 산업이 아니다. 그로 인해서 무거운 금융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자신들의 배당금만을 더 많이

찾아가려는 사람들은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 세상의 금융위기는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게 먹히웠기 때문이다.

-돈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으로 돈을 버는 것은 선하다.

-소비로 인한 유통은 직접 생산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재빨리 이 돈을 회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험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산업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들은 주주나 이사들의 배당금과 연봉을 올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산업에 투자하는데 힘써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만든 상품들은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악하다.

-왜냐면 돈은 신용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돈의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산업활동을 통한 재화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

사람들이 기본을 너무 무시한다.

덕목들을 너무 무시한다.

-덕목상실;성실, 진실, 약속, 겸손, 회개, 책임, 충성, 순종, 경외, 사랑, 온유, 사명감당을 위한 노력과 그를 위한 실력향상.

-적법할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 미안해야 한다.

-올바른 금융지식을 배우기 보다는 탐욕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은 회개해야 한다.